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7월 25일(화) 16시: 사무국 주간회의

■ 연구원 소식

“화양연화, 꽃보다 아름다운 순간을 나눕니다” 2024년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달력 사진 공모전

우리 연구원에서는 회원의 기억과 이야기가 담긴 달력 제작을 통한 회원 공감대 형성 및 참여 확대를 위해 「2024년 달력사진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회원님의 앨범 속에 잠들어 있는 오래된 사진을 꺼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누리집 공지사항과 개별 안내드린 SNS를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연구원 회원의 날 및 개원 17주년 기념행사 안내 (9월 2일 ~ 9월 3일)



이오당 야경

2006년 9월 2일 공식적으로 대문을 열었던 우리 연구원의 열일곱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일(土)~9월 3일(日) <1박 2일>"**에 걸쳐 회원의 날과 개원 17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회원의 날은 장소는 **"전주한옥마을 내 이오당"**입니다.

이오당은 전주 한옥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이어 받은 전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고향집 뒷마루에 앉은 편안함으로 하룻밤을 보내며 새로운 기운을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원 기념 회원의 날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추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연구원에서 참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구원 유선전화 (063-286-3005)나 사무국장(010-6275-0409)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역사속의 오늘

작은연못 - 1950. 7. 26



한국전쟁 당시 대전 방어선이 무너져, 국군과 미군이 퇴각하던 1950년 7월 26일부터 사흘간에 걸쳐,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철교 아래 터널(속칭 쌍굴다리)에 피신한 인근 마을 주민 수백여명이 미군기의 기총소사와 지상군의 사격으로 학살되는 비극이 벌어진다. 살아남은 10여명은 침묵의 통곡을 견디다 4월 혁명 직후 미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지만 기각된 채 역사 속에서 사라진 듯 여겨졌다. 한국전쟁 이후 전쟁에서 한국을 '구해준 은인' 인 미군의 범죄를 꺼내는 것은 용공세력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고, 4월 혁명 이후 집권한 쿠데타 세력과 이어진 군사정권 아래서 유족들은 암흑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다.

1994년 4월 '노근리양민학살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은용(사건 당시 다섯 살 난 아들과 두 살 된 딸 사망 부인 중상의 피해 당사자)이 유족들의 비극을 담은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라는 실록 소설을 출간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한겨레신문은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그해 5월 4일자로 싣고, 월간 말지의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이사)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여 그해 7월호에 "6·25참전 미군의 충북 영동 양민 300여 명 학살사건" 이라는 제목으로 자세한 내막을 기사화하였다.

1999년 9월 미국 AP통신은 당시 미군은 노근리 부근에서 발견되는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 명령에 따라 학살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였다. 이후 국내 언론사들이 앞 다투어 이 학살극에 대해 보도를 시작하여 세상에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정은용씨가 쓴 실록 소설은 2010년 '작은 연못' 이라는 이름의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이후 한국정부와 미국을 상대로 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한 시간을 보내고 2004년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었다.

굴에 갇혔던 피난민들 중 누군가 아이를 낳았으며 아이가 자꾸 울어 총알이 쏟아지자 아버지가 아이를 개울물에 빠뜨려 죽였다는 이야기, 나흘 동안 주민들이 죽어가면서도 몇몇은 시체를 방패삼아 핏물로 목을 축이며 살아남았다는 이야기 등은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학살 사건을 적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 중의 부수적 피해로만 봐야 할 것인가? 혹은 전쟁의 온전한 피해자로서 국가가 나서서 사죄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 이 사건의 진상과 피해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않는 한 대한민국의 비극이 여전히 계속된다는 점은 확실하다.